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Petrobras mulls Buzios-9 floater tender later this year

브라질의 국영 에너지업체 Petrobras가 2021년 하반기까지 Buzios pre-salt field의 9번째 FPSO에 대한 입찰을 시작한다고 보도됨. 현재 해당선박에 대한 FEED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로 종료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FPSO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일 22.5만배럴의 Oil을 생산 가능한 6번째 FPSO급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됨. (Upstream)

Trio in frame for huge offshore contract from Qatargas - here's who is in the running

Qatar NFE 1st phase 프로젝트의 해양파이프라인 공사(subsea pipelay) 공사를 두고 McDermott(미국), Saipem(이탈리아), Allseas(스위스)가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Topsides 패키지 공사를 두고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McDermott, Saipem-Sembcorp Marine이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Upstream)

Sasol sanctions \$760m Mozambique onshore oil and gas project

남아프리카의 Sasol이 Mozambique 육상 프로젝트에 대하여 7.6억달러규모의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를 결정(FID)했다고 보도됨. 이번 결정은 Mozambique로부터 추가적인 가스 공급 확보를 통해 남아프리카 당국의 Gas transformation 아젠다(agenda)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Upstream)

한국조선해양, LNGBV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엘엔지벙커링(주)로부터 7,500CBM급 LNG벙커링전용선 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선박은 2023년 2월부터 통영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LNG추진선에 STS(Ship to Ship)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대한조선, PC, 컨테이너선 등 3척 수주

대한조선이 유럽 선사 두곳으로부터 아프라막스급 석유제품운반선 1척과 원유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들은 LNG Dual-fuelled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됨.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LNG 운임 절벽

최근 3~4주 간 LNG운임이 일일 20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됨. 1) 텍사스 한파로 선적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고, 2) 계절적 성수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한달 내에 용선 가능한 선박은 50~70척으로 파악됐다고 보도됨. (선박뉴스)